

## First Steps: Gifts of Kindness



퍼스트 스텝스에서는 콩우유 제조용 대두를 꾸준히 보내고 있습니다. 부족한 북한 재배 공급분을 추가로 보충하고자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두 구매를 위해 \$\_\_\_\_\_ 를 후원합니다.



캐나다에서 개발한 미량 영양소 스프링클스는 가정식의 영양을 보완하는 혁신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비용은 한 포 당 3센트 이지만 효과는 탁월한 스프링클스는 임산부와 수유부, 24개월 연령까지의 영유아에게 배급됩니다. 엄마와 아기들의 빈혈 및 기타 질병을 성공적으로 예방합니다.

스프링클스 구매를 위해 \$\_\_\_\_\_ 를 후원합니다.



20리터 스테인리스 스틸 콩우유 보관 용기는 생산 센터에서 콩우유를 보관하고 각급 학교의 어린이들에게 배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용기 가격은 \$100입니다.

콩우유 보관 용기 구매를 위해 \$100 또는 \$\_\_\_\_\_ 를 후원합니다.



바이타고트는 다양한 연료(장작, 석탄등)로 작동됩니다. 대두를 콩우유로 만들어 매일 1,500명의 어린이가 한 잔씩 마실 수 있는 양을 생산합니다. 현지 사정상 정전이 잦으나 정전 중에도 작동할 수 있는 것이 바이타고트의 장점입니다. 가격은 \$4,000입니다.

북한의 제휴 시설에 바이타고트 기증을 위해 \$\_\_\_\_\_ 를 후원합니다.



바이타카우는 대두를 콩우유로 생산하여 따뜻하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료를 어린이들에게 제공합니다. 전기로 작동하며 배고픈 어린이들을 먹일 콩우유를 매일 2천 잔씩 생산합니다. 가격은 \$7,000입니다.

북한의 제휴 시설에 바이타카우 기증을 위해 \$\_\_\_\_\_ 를 후원합니다.

name \_\_\_\_\_  
address \_\_\_\_\_  
city \_\_\_\_\_ prov. \_\_\_\_\_  
phone \_\_\_\_\_ email \_\_\_\_\_ postal code \_\_\_\_\_

Please make cheques payable to First Steps and forward to: 3260 West 5th Ave. Vancouver, B.C. V6K 1V4 Canada

BIN: 878227511 RR0001. Gifts are acknowledged with an official receipt for income tax purposes.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us at: 604.732.0195 or [www.firststepscanada.org](http://www.firststepscanada.org)

# 퍼스트 스텝스

# news

2014 가을호



퍼스트 스텝스 팀은 올 여름에 북한을 두차례 방문하여 메주콩 도착분을 확인하고 우리가 봉사하는 어린이들을 일부 만났습니다. 방문 팀은 또한 퍼스트 스텝스의 지역 협력자들을 만나 올 초에 보고 받았던 콩 부족분이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인지 여부도 확인했습니다. 봄 호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2013년 콩이 생장기에 폭우 피해를 입어 밭이 어려워 수확분이 적었습니다.

2차 방문에서 상황이 더 악화된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봄철 폭우 아래로 강우량이 적은 탓에 토양이 건조해져서 밭이 어려웠습니다. 퍼스트 스텝스가 사역하는 여러 도시의 콩우유 생산 공장 관리자들은 걱정이 크다고 일을 모았습니다. 원산 봉춘 식료공장의 리춘식 지배인은 말했습니다. “올해는 아주 건조합니다. 가뭄이 들어 작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대두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남포에서도 저희는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포시의 김평 인민위원회 선생도 올해 작황에 대해 말했습니다. “지난 50년래 최악의 가뭄입니다. 들판이 말라버리고 비가 안 왔습니다.” 지역 협력자들은 저희 팀의 7일 방문 기간에 가뭄 이야기를 종종 언급하면서 늘 퍼스트 스텝스의 지속적인 지원과 도착한 대두에 대해 잊지 않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퍼스트 스텝스에서는 우려와 감사의 마음으로 북한 협력자들의 이런 호소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8월의 3차 방문에서 우리는 의학과학원과 어린이영양연구소의 협력자들과 만나 미량영양소 스프링클스 프로그램 확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결핵 병원 한 곳에서 우리는 어린이들이 스프링클스, 또는 적절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얼마나 심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관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결핵균이 척추에 침투하여 허리가 푹 꺾인 채 똑바로 서지 못하는 어린 소녀가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임신부와 아기들이 스프링클스를 섭취하면 결핵균 및 빈곤층의 생명을 위협하는 다른 질병에 대한 취약성이 훨씬 줄어듭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퍼스트 스텝스는 북한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몇 달 동안 협력자들과 함께 이 힘든 고비를 견딜 수 있도록, 필요한 대로 저희가 부응할 기회를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리라 인내심을 가지고 믿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혼자보다 협력자와 함께 하는 것이 나은 까닭입니다.

## 원산 소식 스프링클스, 큰 성과를 거두다

글: 해미시 로스

퍼스트 스텝스 팀과 함께 북한 동부 해안에 면한 원산 시를 방문한 경험은 수도 평양의 비교적 풍요로운 생활권 밖에 사는 보통 주민들의 일상이 어떤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평양에서 원산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상태가 좋지 않았고 구멍이 숭숭 나 있어, 버스 여행이 더 길어지고 덜컹거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따라 대규모로 운집하여 고된 육체노동(가령 목재 채취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을 보았는데, 이들이 매일 빠짐없이 이런 작업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원산에서 퍼스트 스텝스의 콩우유와 스프링클스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직접 볼 수 있던 경험도 고무적이었습니다. 두 프로그램은 모두 북한 아동의 영양실조 방지에 매우 효과적인

프로그램이지만 프로그램 확대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콩우유는 퍼스트 스텝스의 가장 오래된 최대의 프로그램이지만 신뢰하기 어려운 북한의 전력망이 콩우유 생산 기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는 퍼스트 스텝스의 신실한 지역 협력자들이 모든 것이 지속적으로 작동되도록 할 수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원산 지역의 소식 가운데 제게 가장 고무적이었던 것은 스프링클스 프로그램이 임신부와 수유모, 아기들의 영양실조 예방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스프링클스는 매우 비용 효율적이며 간단하고, 저는 이것이 스프링클스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프링클스는 전력망에

좌우되지도 않으며 합병증도 거의 없습니다. 저는 건강한 아기들과 행복한 어머니들을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비교적 나이가 많은 한 임신부가 몸이 허약해서 임신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는데 스프링클스를 복용한 뒤 훨씬 좋아졌다며 뱃속의 아이가 건강하리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던 것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콩우유를 맛있게 마시는 어린이.

## 새 지역 파트너 소개 박순신 님

박순신 원장님은 전임 박봉숙 원장님이 건강상의 사유로 퇴직하자 6월 초에 원산 초등학원(고아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7월 초에 퍼스트 스텝스 팀이 방문했을 때는 부임한 지 몇 주밖에 안 됐을 때였습니다. 일정이 촉박하여 박 선생님과 오랜 시간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맡은 어린이들에 대한 진심어린 헌신을 여실히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박 교장의 남편께서는 선생님이 밤 10시까지도 귀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열다섯 살 난 아들을 직접 돌보고 요리를 하신답니다.



주 7일 업무에 헌신하시는 박 교장.

선생님은 500명이 넘는 모든 어린이들이 괜찮은지 확인하시고야 퇴근을 하십니다. “집에 가야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린이들 틈에서 일하다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금세 9시, 10시가 됩니다.” 박 원장선생님은 일요일에는 비번인데도 학교에 온다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쉬는 날에도 와서 보지 않으면 편치가 않아요.

## 퍼스트 스텝스 차일드 종석경 군

석경(14세) 군은 원산 중등 기숙학교 학생입니다. 저희는 7월에 석경 군을 인터뷰하며 일과에 대해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14세 소년들이 흔히 그렇듯, 석경 군이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체육입니다. 선택할 수만 있다면 물리는 안 배우면 좋겠다고요. 석경 군은 학교의 두 농구팀 중 한 곳에서 운동을 합니다. 석경 군은 자기 팀이 더 낫다고, 자기가 주전이라고 수줍게 말합니다. 농구 코트에서 운동을 하지 않을 때면 유명한 북한 음식인 냉면을 먹는 걸 좋아합니다.



농구 하러 가는 길이라 기분이 좋은 석경 군.

## 오 예, 귀염둥이 오예공 양

오예공 양은 지난 7월에 우리가 만났을 때 생후 6개월이었습니다. 예공이는 최근에 이유식과 함께 스프링클스를 매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공이의 어머니와 의사선생님은 어린 예공이가 아주 건강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의사는 줄자를 꺼내어 예공이가 같은 월령대의 다른 아기들보다 얼마나 더 키가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몸집이 큰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기를 꼭 안고 있느라 팔이 아플 텐데도 예공이의 어머니는 얼굴에서 웃음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 모녀를 만나고, 여러분의 너그러운 후원 덕분에 가능해진 스프링클스가 북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직접 목격하니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 웃음은 전염성이 강해요

저희 팀이 북한 방문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어린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일입니다. 퍼스트 스텝스가 영양 풍부한 콩우유를 제공하는 고아원의 어린이들은, 처음에는 낯을 가리다가도 언제나 우리와 놀고 싶어합니다. 아이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는 검증된 방법 한 가지는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몇 분이 되지 않아 우스운 사진을 보고 킥킥거리며 나타나서 서로를 붙잡고 포즈를 취하며 똑바로 서있기도 힘들 정도로 카메라에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곧 깔깔대며 웃고 언어 장벽이 무너지면서 우리는 웃음에는 언어가 따로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며 흐뭇해지지요.

